

대학내 창업 활동 현황 및 지원 방향

고 학 근 | 중소기업청 벤처 기업국 창업지원과장

1. 대학에서 일고 있는 창업 열기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최근 세간의 화두는 '벤처(Venture)'이다. 국내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벤처기업이 부상하고 있고,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벤처열풍이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벤처창업은 대학에까지도 열풍을 일으켜 창업동아리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강의실을 뛰쳐나온 대학생들이 창업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대학생 기업가도 등장했다. 19세에 창업하여 최고 기업을 일군 빌게이츠처럼 대학생들이 창업의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교수들도 캠퍼스 밖으로 나가는 추세이다. 주로 기업의 자문에 그쳤던 역할에서 보유한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벤처기업의 사장으로서 변신하고 있다.

창업 열기는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한 카우프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 열기가 높을수록 왕성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반면 창업 열기가 낮을수록 성장률은 저조해진다고 한다. OECD의 최근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

서 중소기업의 창업 활동은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한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신규 창업 기업은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해 도태와 생존을 반복하는데 신규 창업이 활발해질수록 경쟁과 협력관계가 더욱 치열하게 되어 기술 혁신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높은 창업률은 경제 성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대학의 캠퍼스는 곧 비즈니스(Business)가 되고 있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상아탑을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하이테크산업의 벤처기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버드대와 MIT가 등지를 들고 있는 보스턴 교외의 캠브리지시 켈달스퀘어 지역은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벤처산실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의 책임경영자들은 하버드-MIT의 교수 내지는 졸업생들이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경우 교수,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80여 개사에 달한다. 그리고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대학의 9개 캠퍼스에는 한결같이 하이테크 기지가 조성돼 있다.

지식산업에 있어 대학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이 높이 평가되

고 있으며, 대학 스스로가 새로운 산업의 창조자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선진국에서는 대학이 21세기 지식사회에 있어 변화의 주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국내 대학의 창업 활동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2. 대학의 창업 활동 현황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 활동은 교수와 대학생 창업과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교육, 창업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교수와 대학생의 창업

① 교수의 창업

대학교수들은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 '99년 6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교수의 벤처창업시 휴직, 또는 벤처기업 임직원 겸임 및 겸직이 가능하게 길을 마련하여 대학교수들도 연구와 함께 직접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이 시행된 후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벤처창업을 한 경우는 '99년 8월 말 현재 108건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교수가 직접 벤처사업의 대표자로 창업한 경우는 40건이고, 임·직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68건이었다. 기업에서 교수의 역할은 벤처창업시 대표자보다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창업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공학계열 업종의 창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교수 벤처창업 업종 분야별 분포

업종 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명공학 의학	기계 자동차 신소재	환경공학 화학	경영 건설링	디자인 패션	서비스 및 기타	총계 (개)
분포	55	14	16	13	3	3	4	108

지역으로는 서울지역 23건, 경기지역 25건 등 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수 창업이 활발하였고, 창업시 대학 내 공간을 활용한 실험실 공장과 대학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에 의해 실험실의 우수한 기술들이 연구결과가 사업화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교내 유전자식 연구소에서 유전자식 기술을 상업화하여 '97년 6월 설립한 마크로젠이 교수 창업으로 처음으로 코스닥에 등록되기도 하였다. 또 부산대 김제호 교수의 (주)엠아이, 포항공대 남홍길 교수의 제노마인(주), 조선대 한승조 교수의 (주)소프트프로텍, 가톨릭대 송재만 교수의 카비오텍, 강원대 김현영 교수의 에이엔디티(주) 등 전국 대학에서 우수 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② 대학생의 창업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로 벤처 창업을 하면서, IMF 이후 실업난으로 위축된 대학가에 대학생 벤처창업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주로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사업 아이템의 구상, 연구조사, 개발, 창업팀 구성, 시제품 테스트, 마케팅 등 창업 전반의 과정을 습득하면서 창업예비활동을 거치고 있다. 이는 캠퍼스 생활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도출하여 사업 기회를 탐색하고 모험사업을 직접 실현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창업동아리가 대학 내에 결성되어 있

고, 창업동아리 회원이 8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126개를 대상으로 창업동아리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창업은 '99년에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98년의 71건보다 한층 증가된 실적으로서 조사되지 않은 대학생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창업의 67%가 정보통신 및 인터넷분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99년 창업동아리 창업활동 분야

구 분	동아리 수(%)
정보통신(인터넷, 콘텐츠 포함)	62 (49.2)
전기전자(게임, S/W, H/W 개발)	26 (20.6)
영상애니메이션(디지털, 캐릭터 포함)	8 (6.3)
기계·자동차·신소재 등	13 (10.3)
환경·화학(식품·섬유 포함)	2 (1.6)
생산, 서비스(광고·출판 등)	15 (11.9)
총 계(개)	126

창업이 이루어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에서의 창업이 51건으로서 전체 창업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정보수집, 마케팅이 유리한 지역에서 대학생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동아리 활동도 체계화·규모화 되어가고 있다. 아산시에 위치한 호서대의 경우, 학교의 확고한 비전과 의지로 창업동아리 40여 개가 구성되어 있고, 학생 벤처동아리관을 건립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창업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치를 살리자는 의지의 반영이다.

창업동아리 출신 중에서 코디넷의 홍성민 기술팀장, (주)원포스의 강수현 대표, (주)포씨소프트의 권혁빈 대표, (주)하빈의 서윤득 대표, 바리엔터테인먼트의 정연수 대표, (주)비엔디의 권호 대표, (주)아이캐슬의 이충렬 대표 등은 대학생 창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창업은 오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첨

단 기술분야보다는 쉽게 사업화가 가능한 인터넷관련 분야에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개인이 기업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이야말로 지식강국의 '생명수(Lifblood)'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란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를 자기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 정신을 지닌 창업자는 자신만의 지식과 정열, 경험을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간다.

영국의 지식국가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스티븐 바이어스장관은 '21세기에는 사람과 지식자산이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습에 대한 투자야말로 최우선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모든 정책과 정부활동을 '보다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지식이 충만한 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영국 미래의 번영은 신세대 기업가들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 아래 대대적인 기업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등 다른 외국대학들도 대학 내에 벤처 기업코스를 개설하고, 학생들 중 기업가적 성향을 지닌 새싹들을 육성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국내의 일부 대학에서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 창업교육을 실시해오다가 '9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의 정규과목에 창업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과목은 주로 교양과목 및 경영학, 산업공학 분야에서 개설되고 있는데 「벤처창업론」, 「벤처창업실무」, 「창업경영실무」, 「벤처 기업창업개론」, 「기업가 정신과 창업관리」, 「창업경영론」, 「창업과 기업가 정신」, 「기술과 창업」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편적인 창업절차 소개 정도여서 창업마인드를 키워주는 효과는 있으나,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97년부터 대학에서 창업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좌개설에 따른 비용 부족액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창업강좌 개설을 유도하여 왔고, '99년의 경우 79개 기관에 110여 개의 창업강좌를 지원, 7,000여 명의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올해부터는 각 대학에서 창업자의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준을 상향시켜 실효성 있는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창업 보육(Business Incubating)

최근 들어 대학들은 창업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대학 내에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창업 보육은 대학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기업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종 기술상담, 경영컨설팅, 창업인력교육 및 훈련 등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즉, 대학은 보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성공에서 대학제정을 확충할 수 있고, 시장에 근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내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에는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을 입주시켜 2~3년 동안 작업장 제공, 경영·기술지도 및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율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보육닥터제를 운영하여 입주업체마다 전담교수를 지정하여, 창업준비 과정에서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투자유치, 매출 급성

장 등 성공한 사례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어 1~2년 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92년부터 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99년 말 142개의 보육센터를 설치·지원하였고, 이미 운영 중인 보육센터 내에 375개 업체가 입주하여 대학의 우수 신기술을 이전받는 등 창업보육 중에 있다. 올해는 대학에 8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의 대학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확충되어 전국에서 매년 2,000여 개의 신규 기업이 보육되어 신기술에 바탕을 둔 벤처 기업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창업기로서 대학의 역할과 지원 방향

대학 내에서 창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반면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대학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교수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

대학은 기술력, 아이디어, 창업열기 등 창업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배양되어 있는 저장소이다. 그래서 대학은 제도를 안에서 우수 신기술을 사장하지 않고 시장에 신속히 제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99년 정부는 교수와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가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 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 기업 임·직원으로서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대학이 대학 교수를 통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신속하게 해당 대학의 실험실 등 연구시설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우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

을 검토하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센터를 건립하여 연구인력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대학 보유의 핵심 원천기술을 이전시키는 방법,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기술창업자에게 보유기술과 대학의 기술을 접목시켜 공동개발 내지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화 하는 방법, 대학보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기술중개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기술을 상품화 하는 방법 등이다.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대학 실정에 맞게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데 실제 대만의 한 대학에서는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우수 신기술 사업화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한 연구소에서는 자회사를 통해 기업에 기술을 팔고, 기업에 투자하여 연구소에서 필요한 50%의 재원을 자체 충당하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교수 창업시 고급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작년에 병무청 및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규를 수정, 교수 벤처기업이 병역특례기관으로의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도 하고, 대학 내 기술이전센터를 장려 지원하고, 교수의 창업보육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업을 홍보,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재단법인화, 대학제정 및 예산시스템 보완, 우수 신기술 사업화 건물에 대한 국유 임대료 감면, 대학 및 교수평가시 창업실적 반영, 창업 기업가 양성 교육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창업지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조치를 통해 기술관련 고급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의 실험실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 경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가 정신 훈련을 통한 예비 기업가 양성

21세기는 지식이 새로운 경제수단으로 등장하고, 기

인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이 대학생을 규격화된 직업인으로 대량 양산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닌 미래 기업가로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자율 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 스스로 창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조직으로서 '창업동아리 활동'은 미래 기업가 양성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창업동아리 신규 발굴, 창업아이템 개발 지원, 창업 기업의 현장교육, 해외 선진 벤처기업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생을 미래 기업가로 양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신규 발굴은 각 대학에서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 발굴하여 대학생 창업 활동 환경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전국에서 80여 개 창업동아리를 지정하고 동아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창업동아리가 개발 중인 창업사업 아이템을 공모하여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촉진한다. 2000년도에는 전국의 창업동아리에 200여 개 아이템을 선정, 아이템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한다.

그 밖에 '해외 선진 벤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창업동아리 대표들로 하여금 방학기간 중 선진 벤처 기업 등의 견학을 지원하여 벤처 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들에게 부족한 현장경험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벤처기업 현장견학 실시, 벤처경영의 실체를 체험할 기회 제공 등이다. 또 방학기간 중에 약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4회에 걸친 '대학생 벤처창업스쿨'을 열어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대학생 창업 활동 지원은 젊은 세대들

에게 기업가적인 소양을 갖추게 할 것이고, 젊은 벤처 기업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기능을 미래 기업가로서의 대학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3) 기술창업자의 창업보육 사업 확대

국내 창업보육센터는 활성화 단계에 있고, 전국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이 찬양이다. 외국의 사례 중에서 창업보육사업은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2~2.3%를 R&D에 지원할 정도로 첨단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스라엘의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은 러시아 이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26개에 이르는 보육센터(Incubator)가 있고, 각 보육센터당 1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당 2년 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센터 졸업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7%의 기술료를 받아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1998년 과학수석관실(OCS)에서 R&D지원금액 4억 700만 달러 중 약 7%는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하여 인큐베이터를 거쳐 졸업한 프로젝트는 509개이며, 현재는 308개가 계속 운영 중이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학에서는 대학 내 창업인큐베이터와 '캠퍼스 컴퍼니(Campus Company)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재 50개가 넘는 '캠퍼스 컴퍼니'가 설립되어 벤처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산학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노베이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완성되면 4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학에서 창출된 신선한 지식을 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중소기업청은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금년 중 사업자로 선정된 80개의 대학과 연구소에는 사업비용의

20% 이상을 대응 투자하는 조건으로, 최고 7억원까지 보육센터 건물 마련, 공용장비 구입 및 고가 S/W 구입 비용, 기타 지원설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은 창업보육 사업을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또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내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 기술컨설팅, 기술판매 등 세롭고 혁신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경영교육, 기술이전 등 지역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학과 지역 산업단지와의 연계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지역산업 인력 교육, 개발 및 제품의 시험,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어 그 협력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의 올루 대학은 그 협력체계의 좋은 모델인데 올루 대학은 헬싱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학이라 설립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면서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주효하여 '80년도부터 첨단 기술과 지식의 요람으로 유럽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학 주변에 있는 기업은 줄잡아 130여 개로 핀란드 경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노키아를 비롯해 최근 각광을 받는 상당수 벤처기업이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이들 기업의 주요 연구 인력을 올루 대학에서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학과 과학단지를 한곳에 붙여놓았다. 이들 과학단지의 특이한 공통 특징은 구내 식당이 대학과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업인과 대학 교수, 학생이 한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대만의 경우도 유사한데 연구단지로 유명한 신죽단지(新竹園地)에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 및 기술교육을 단지 내에 소개하고 있는 칭화(淸華)대학과 교통(交通)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통대학은 신죽단지에서 전신

(Telecommunication)분야의 기술인력 입주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테크노파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생산거점으로서의 공업단지와 달리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단지를 조성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한 신기술 혁신과 산업계에 첨단 기술 연구결과 이전 및 신기술 창업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생산기능과 대학·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중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이며, 생산, 연구, 그리고 주거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 단지의 형태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도 점차 대학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시설의 공유, 전문기술 인력의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 산업단지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함께 연구개발, 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창업보육 및 창업, 그리고 시험 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4. 제언 : 부 창출의 중심축, 벤처산실로서의 대학의 변신

20세기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기업(Business)의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는 교수와 기업가의 통합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분야 교수들이 스스로 기업가가 되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네덜란드에서는 정보 기업가(inforpreneurship), 싱가포르에서는 대학 기술연구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테크노기업가 정신(Technopreneurship)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부근에도 실리콘 벨리를 벤처마킹한 '실리켄'이라는 하이테크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대학을 기업화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 모두 교육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학을 예비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예비 기업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지도 방식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대학 자체가 '배움의 터'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예비 기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대학에서 대학 교수의 벤처창업이 다수 배출되고, 대학생들은 교수 창업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벤처창업에 도전하는 풍토가 형성되고, 대학이 국내 벤처열기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금 더 바라다면, 대학 내에 창업마인드를 재고하고, 교수의 연구실적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술창업,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을 좀더 심화시켜 성숙시키고 보유 기술의 기술판매, 기술투자 등을 차차 활성화 나간다면 대학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리라 본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대학을 근거로 하여 지역 산업단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 산업을 특화하고, 대학을 벤처산실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실리콘벨리와 같은 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첨단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와 같은 첨단 산업의 메카로서 대학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도래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대학이 생존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 인프라로서의 대학의 변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

고화근

서독 Bohn 대학교 국민경제과정을 수석하고, 상공부 통상국, 공업진흥청 검사국 과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과장으로 재직중이다.